

고수온 대응 현장 찾아 양식 피해 상황 세심히 살펴

- 송명달 해수부 차관, 충남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 현장점검 -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3(금) 고수온 경보가 발표(8.2.)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했다.

먼저, 송 차관은 서산 창리에 위치한 송어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.

현장을 점검하면서 송 차관은 “송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,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”라며, “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이어서,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며, 근심하는 어업인을 위로했다.

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”라며, 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.”라고 말하였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승준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	심수빈 (044-200-5392)
				유병동 (044-200-5616)